

지역 소식통

부안군, 우체국쇼핑몰 특별 할인판매 진행

부안군(군수 권익현)과 부안우체국(국장 황현중)은 가을철 수확기를 앞두고 우체국쇼핑몰 「부안군 브랜드관」에서 특별 할인판매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12월 20일까지 진행되는 가을맞이 부안사랑 프로모션 행사는 코로나19 및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농·축·어업인 및 소상공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청년의 솜씨 햅쌀, 가을꽃개, 뽕편육 등 부안지역 48개 업체 132개 상품이 5~25%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된다.

행사기간 중 부안군 농특산물은 우체국창구에서 직접 방문 구매하거나 우체국 쇼핑몰을 통해 구매 가능하며, 인터넷이나 모바일 활용시 브랜드관 상단의 할인쿠폰을 다운받으면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다 함께 화합 건강걷기대회' 성료

정읍시가 주최하고 정읍시 가족센터가 주관하는 '다 함께 화합 건강 걷기대회'가 지난 23일 정읍 걷기터 어린이축구장에서 열렸다.

이번 걷기대회는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물론, 정읍시민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과 소통으로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지역사회공동체 인식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학수 시장과 시민, 다문화가족,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 1,00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삼골대리와 천변로, 정동교를 지나 어린이축구장으로 돌아오는 약 4km 길이의 코스를 걸으며 걷기 생활화의 각오를 다졌다.

이와 함께 행사에서는 나라별 의상 체험과 페이스 페인팅, 환경 인식개선, 다문화 인식개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드론쇼와 신비탐 장구 난타, 벨리댄스 등 축하공연도 열렸다. 특히,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을 제공하고, 경품 추첨을 통해 풍성한 상품도 제공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부안로컬푸드, 이용객 10만명 돌파

### 개장 1년 5개월여 만에 누적 매출액 30억원 달성

지난해 5월 말 개장한 부안로컬푸드 직매장(임시)이 개장 1년 5개월여 만에 누적 매출액 30억원 달성 및 이용객 10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최근 소비 트렌드인 신선하고 건강한 지역 먹거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지역 농산물의 건전한 유통구조가 정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군에 따르면 개장 초 월평균 5천여명(일 평균 170명)의 이용객과 1억3천여만원이었던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여 올해 들어서는 이용객 8천여명(일 평균 270명)과 매출액 2억원 선으로 150% 이상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 회원가입자 수도 3천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성과는 군민의 보편적 복지인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부안군이 직접 시책으로 추진하는 '부안형



푸드플랜 구축'의 시발점으로 중·소농을 중심으로 한 다품목 소량생산의 연중 기획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생산자와 직매장 관계자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현재 직매장에는 350여 농가의 지역 농·수·축산물과 가공품 등 600여 품목이 출하되어 판매되고 있다. 소비자가 믿고 살 수 있도록 품목별로 생산자 표시와 진열 판매 기간을 설정하여 신선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잔류농약

검출 여부 등 안전성 검사를 통해 그 결과를 매장 내에 게시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쌓고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의 임시 직매장은 품목별 조직화를 통한 생산능가 육성 및 운영 노하우를 배우고 준비하는 단계로, 매출 추이를 볼 때 지금은 행정에서 운영비 등 일정 부분 지원을 하고 있지만, 매장이 본격 운영되는 2023년에는 손익 분기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울러 격포권 로컬푸드직매장 개설 학교급식, 공공급식, 복지급식 등이 본격 추진되는 2024년 이후에는 연간 100억원의 매출액이 달성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2일 오전 로컬푸드직매장에서는 10만번째 이용객을 맞이했다고 전했다. 이 행운의 주인공은 부안읍에 거주하는 정 모씨 부부로 정 모씨는 "뽕소처럼 장보러 왔다가 뜻밖의 행운에 감사하고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근 부안로컬푸드에 기상악화 및 관광객들이 이용하며 버리고 간 생활쓰레기와 해양폐기물로 인해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상황이다.

## 깨끗하고 아름다운 관내 항 만들기

### 부안수협, 항구 환경정비 나서

최근 부안로컬푸드에 기상악화 및 관광객들이 이용하며 버리고 간 생활쓰레기와 해양폐기물로 인해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상황이다.

이에 깨끗한 항을 만들기 위해 부안수협 임직원 110여명과 가력도선주협회, 부녀회, 부안군청 직원 등 50여명이 지난 22일 격포항 가력도항, 송포항 등에서 해양쓰레기 및 생활쓰레기를 치우는 대청소를 벌였다.

부안수협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부안관내항을 만들기 위해 부안군을 찾는 관광객 및 어장활동을 하는 어업인

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전 임직원 및 기타단체들이 이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계획했다.

이날 약 15톤(50리터 마대 300개)의 해양폐기물 및 생활쓰레기를 수거했다.

수협 관계자는 "현재 어려운 경제 환경으로 수협도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오늘 같이 임직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면 더 큰 기회가 올 것이라 믿으므로 이번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 가을 단풍철 사전 위생점검 철저 강조

### 이학수 정읍시장, 간부회의서 민원 만족도 향상 노력도 당부

이학수 시장이 24일 오전 열린 영산 간부회의에서 본격적인 가을 단풍철을 맞아 올바른 행락문화 정착과 쾌적하고 안전한 관광 여건 조성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행락철 관광객이 많이 찾는 내장산과 빛 축제가 열리고 있는 정읍천 인근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사전 위생점검을 철저히 해 영업자와 종사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손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가격 표시제와 유통기한 등 식품 취급기준 등을 준수하고, 종사자



친절·위생교육 등을 추진해 지역을 찾는 행락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민원 처리 시 확실한 피

드백 제공과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직원들이 힘써 줄 것도 당부했다.

이 시장은 "시민이 신뢰하는 민원 서비스 실현을 위해 민원 처리 시 민원에 대한 충분한 이해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충실하게 답변하고, 처리 절차 등 철저한 준수사항 이행으로 민원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가을철 나뭇잎 인파가 늘어남에 따라 산불 방지 홍보활동과 영농폐기물 소각단속 등 감시활동에도 만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고창군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 본격화

정책개발 및 의원입법 활성화를 위한 고창군의회 의원연구단체가 본격적인 활동을 들어갔다.

제9대 고창군의회(의장 임정호)는 지난 20일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를 열고 '고창군의회 한빛원전 환경안전 연구회'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승인했다.

임종훈의원을 대표로 조규철 의원, 박성만 의원, 오세환 의원, 이선덕 의원 이상 5명의 의원이 참여하는 '고창

군의회 한빛원전 환경안전 연구회'는 한빛원전 관련 고창군 피해 예방 및 대응 방안 마련, 원전 가동에 따른 고창군의 현 상황 파악 및 관련 제도 개선, 체계적인 원전 정책 마련을 위한 의정활동 자료 수집 등을 목적으로 발족했다.

이 연구회는 주민 및 전문가 간담회, 현장방문, 토론회 등을 통해 한빛원전으로부터 고창군민의 안전 확보 등 체감도 높은 정책개발 연구 등 내실 있



는 연구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임정호 의장은 "고창군의회의 첫 연구단체로 기대가 크다"며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원연구단체 활동에 최선을 다해줄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정읍시 보건소,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보 발령

정읍시보건소는 가을철 농작물 수확과 벌초, 성묘 등 야외활동이 빈번한 시기에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쯤쯤거무시증, 라임병 등이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주로 4월~11월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린 후 발열, 오심, 구토, 설사 등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며 치명률이 약 20%에 이른다.

쯤쯤거무시증은 가을철 야외활동 시 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질환으로 1~3주 후부터 고열, 오한, 두통 등 증상이 있다.

진드기에 물린 자리에는 검은 딱지가 생기고 털진드기 유충이 활발히 활동하는 시기인 9월~11월에 전체 환자의 90% 이상이 발생한다.

라임병은 진드기 노출 후 약 1~3주 후 물린 부위를 중심으로 원심성으로

퍼져가는 특징적인 유두성 홍반이 나타난다.

진드기가 매개하는 감염병은 예방백신이 없는 만큼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의 예방법이다.

농작업이나 벌초, 등산 등 야외활동 시 긴 소매, 긴 바지 등으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진드기 기피제를 보조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또 귀가 후 옷 세탁과 샤워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야외활동 후 발열, 두통, 소화기 증상 등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받아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초기 증상이 감기와 비슷해서 진단과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야외활동 후 두통, 오한, 구토, 근육통 등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 소중한 분에게 고창군수협 수산물 선물해보세요!

**고창군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김충 / 상임이사 김영식

[www.gochang-suhyup.co.kr](http://www.gochang-suhyup.co.kr)

**풍천민물장어**

수협에서 인증한 민물장어 전용 양만장에서 치어부터 정성껏 1년간 길러내어 맛과 영양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풍천 민물장어로 고소한 맛이 강하고 육질이 탱탱해서 씹히는 맛도 좋아요.

**지주식 재래김 친환경 유기수산물 인증**

김 포자를 대나무에 꽂아 밀물때는 바닷물에 잠기고 썰물때는 노출 되어 광합성을 하는 방식을 통해 자연적으로 김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김 본래의 맛과 향을 살려낸 명품김이에요.

**바지락 (수확시기: 4월~10월)**

전국 바지락 양식 생산량의 절반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국내 대표 바지락 원산지인 고창은 매우 적합한 서식환경을 제공하여 조개의 육질이 매우 뛰어나고 맛이 좋아요.

장어김 (063)561-5949 핸드폰 010-4390-5949  
바지락 (063)563-2135 핸드폰 010-9322-2135